

I. 서론

보통 아르바이트로 쉽게 일하고 쉽게 그만두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는 많아 이후 취직을 해 직업을 가지고 학교 생활, 아르바이트 활동때는 느낄 수 없었던 막중한 책임감과 힘들음을 느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인턴쉽을 겪으면서 다른활동에서는 느끼기 힘든 의무를 가지고 자신뿐만 아닌 학교의 이름을 걸고 가는것이기에 때문에 책임감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자신이 원하는 길을 미리 체험해 보며 너무 넓어 선택하기 힘들어 하는 직업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인턴쉽을 통해 자신이 알고있던 관련지식, 경험 이외에도 많은 것이 발전되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관련된 업무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학실습을 했던곳에 직원으로 스카웃을 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학생 입장에서는 힘든 활동을 통해 더욱더 많은 발전을 해가려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턴쉽에서는 어떠한 한 분야에서만 좁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주방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주방에서는 재료손질, 재료의 종류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음식 만드는법, 메뉴의 레시피 등을 알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리의 마무리로 가장 중요한 청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빠른 시간안에 깔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II. 본론

평상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와 쉽게 보지 못하는 재료들을 함께 보며 손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학교에서 배웠던 손질법과 식당과 같은곳에서 대량으로 손질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월향 조리팀에서 일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맞춰 이전에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극복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주차에는 매일 출근을 하자마자 아침전을 부치고 전반죽을 담당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런치타임에는 솔밥담당 디너타임에는 딜리를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2주차에는 1주차와 같이 요일마다 달라지는 아침전을 부치고 전반죽은 담당하고 런치타임, 디너타임을 담당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런치타임에는 솔밥담당 디너타임에는 딜리를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마감 청소(화구, 바닥 등)를 배워 활동하였습니다. 4주차에는 디너타임에는 메인(주문확인), 딜리(두부김치, 고명엿기, 튀김기 등), 전판(전 종류 전체), 상판(국, 볶음류)으로 나뉘는데 상판을 담당하였습니다. 5주차에는 4주차와 비슷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4주차와는 달리 딜리(두부김치, 고명엿기, 튀김기 등), 상판(국, 볶음류)을 함께 담당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차인 6주차에는 그동안 해왔던 활동과는 전혀 다르게 하는 모듬전을 담당하여 재료손질, 전 종류마다 부치는 방법, 전을 크기마다 다르게 담는 방법등을 배웠습니다.

전통주 음식점인 만큼 음식이(전 종류, 탕 종류 등) 한식과 많은 관련이 있어 한식을 전공으로 하는 저희의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뿐만이 아닌 전통주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있어 이전의 전공에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 주어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Ⅲ. 결 론

평상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낄 수 없었던 막중한 책임감과 누군가에게 묻기 전 다른분들이 하시는 작업과정을 관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저만의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빨리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다른분들의 대처방법을 보며 배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직원분들과 친해지거나 친해지지 못하더라도 그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것과 같이 어느곳을 가더라도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활동에 대해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같은곳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분들이 저희와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더 어리다는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것들처럼 정말 아직까지 우리는 부모님, 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을 더욱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다 다른곳으로 흩어졌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안좋은 소리만 듣게된다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것과 달리 오히려 친한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했다면 그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친구들의 말에만 집중하여 다른 직원분들의 사소하거나 지나가듯이 이야기하시는 말들을 듣지 못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길이었던 것 만큼 제가 원하는 길을 더욱더 가고 싶다는 계기를 더욱 더 만들어 줬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